

조선후기 서얼들의 역할과 학습내용

국사편찬위원회 이순구

1. 머리말

『경국대전』 예전 과거 조항에는 “서얼 자손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있다. 조선 사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의 문과를 서얼들에게는 오픈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조선 최고의 목표를 잃어버린 양반 서얼들은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조선에서 관직생활을 한 양반남자는 첩을 두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앞으로 소개할 남이응, 권상일, 노상추 등은 모두 관직생활을 했고 예외없이 첩을 두었다.¹⁾ 여기에서 권상일은 약간 예외라고 할 수 있다. 권상일은 세 번 상처를 하고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소실을 들인 경우이기 때문에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첩을 들인 것과는 좀 다르다. 그러나 어쨌든 이 세 명의 관직자들에게는 모두 첩의 아들인 서얼이 있었다. 적자 대비 서얼의 숫자는 결코 적지 않았다. 남이응은 적자들이 모두 죽고 없는 상황에서 양자를 했고 서자가 1명 있었으며, 권상일과 노상추는 각각 적자와 서얼이 1명씩 있었다.

서얼도 무과나 잡과는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가 되면 무과를 통한 출세도 그리 만만치 않았다. 벼슬을 하고 싶은 양반은 많은데 관직은 한정돼 있어서 유수한 양반들이 점점 무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노상추 집안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따라서 가능한 과거도 문은 좁았고 시간 투자 대비 실익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서얼들은 어떻게 했을까? 울분을 참지 못하며 서얼도 문과를 볼 수 있게 하라며 ‘서얼허통(庶孽許通)’ 운동에 매진하거나 혹은 홍길동처럼 ‘율도국’ 건설을 꿈꾸며 어디론가 떠났을까? 서얼허통 운동은 물론 조선 시대 내내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서얼들의 일은 아니었다.

조선후기 일기류 자료에 보이는 서얼들은 대체로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의 삶의 근거지는 집안 내에 있었다. 조선후기 사회는 집안 혹은 종중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였기 때문에 집안에는 늘 일이 많았다. 서얼들은 집안이 실질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렇다면 그 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또 그것을 위해 서얼들은 어떤 공부를 했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만족감은 어느 정도였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조선후기 서얼에 대해 이제까지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들의 실질적인 생활, 역할 또는 의식세계에 대해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서얼이라는 존재를 통해 조선의 가족 운영 시스템을 읽을 수 있고 나아가 조선후기 사회가 어떻게 가족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서얼 노수의 부자 되기 스토리

1771년(영조 47) 7월 30일, 노상추는 서얼 숙부 노수(盧洙) 때문에 분통이 터졌다. 문종이 기어이 노수 말대로 족보에서 ‘서(庶)’ 자를 빼주기로 했기 때문이다.²⁾ 노수는 노상추 아버지의 서얼 사촌으로, 노상추에게는 오촌

1) 『병자일기』, 『청대일기(淸臺日記)』 『盧尙樞日記』에 등장하는 주요인물이거나 저자들이다.

2) 『노상추일기』 1771년 7월 30일

서당숙이 된다. 그럼, 노수가 과연 무슨 일을 했기에 족보에서 ‘서’ 자를 뺄 수 있었을까?

이 일이 있기 30년 전 1742년 즈음, 노상추의 할아버지 죽월공(竹月公)은 사람을 찾고 있었다. 죽월공은 당시 잘나가는 관직자였는데, 집안을 위해 일종의 재단인 ‘계(稷)’를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이 계를 관리할 적임자가 필요했는데, 이때 나선 사람이 노수였다. 노상추의 아버지는 사촌이라는 정리를 생각해서 노수를 책임자로 추천했다. 죽월공은 270냥을 내놓으면서 “이 계가 잘되고 못되고는 모두 너에게 달렸다. 잘 관리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벼슬 그만두고 돌아와서 보고 처리할 것이다”라고 했다.

십 수 년이 지난 뒤, 죽월공은 노수에게 계의 돈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자고 했다. 노수는 토지는 그대로 있지만 그 외 물건들은 돈으로 바꾼 후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몇 달 후 노수는 집에 도둑이 들어 돈을 몽땅 털어갔다고 하며 자기 집 여종을 잡아 문초하기 시작했다. 여종은 “도둑이 들지 않았는데 무슨 물건을 잃어버립니까? 하늘이 제 무죄를 알 것입니다”라며 끝내 승복하지 않았다.

여종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자, 보다 못한 죽월공은 1000냥이나 되는 돈을 탕감해주었다. 그러자 노수는 다음 날 400냥과 토지 문서를 내놓고는 계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그리고 3년 후인 1755년(을해년) 대흥년 때부터 노수는 감춰뒀던 토지와 노비 등을 슬슬 팔기 시작하여 드디어 거부가 됐다.³⁾

이 내용은 노상추의 일기에 나오는 노수의 ‘부자 되기’ 스토리이다. 물론 노상추 입장에서 쓴 글이다. 노상추는 노수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노수의 부도덕성을 논란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노수가 문중 일을 봤고 거부가 됐다는 사실 자체에 있다. 설사 노상추의 말대로 노수가 문중 재산을 빼돌렸다고 해도 빼돌릴 만큼 재산을 키운 것은 분명 노수였다.

부자가 된 지 수년 후 1766년 11월 2일, 집안 제사가 있는 자리에서 노수는 처음으로 족보에서 ‘서’ 자를 빼달라고 요구한다. 노상추는 종중(宗中)을 모욕하는 처사라며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노수는 포기하지 않고 틈만 나면 다시 요구를 한다.

그리고 마침내 1771년 족보에서 ‘서’ 자를 빼는 데 성공한다. 종중은 노수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어 중회를 소집했고, 노상추 동네 사람들도 몇몇 중회에 참석했다. 물론 노상추는 가지 않는다. 당일 저녁, 회의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서’ 자를 빼기로 결정했으며 곧 새 족보를 발행하게 될 거라고 하자, 노상추는 흥분한다.

“이런 일은 한두 사람이 결정할 일이 아닌데, 끝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구나. 아, 우리 집안이 망하는 것은 하루를 기다릴 것도 없겠다. 일개 서얼의 말을 이렇게 좇아가다니 오호 통재라, 오호 통재라.”

그러나 그로부터 3년 후 1774년 6월 3일 노수의 아들 상업이 자신의 아버지 이름 위에 ‘서’자가 아직도 그대로 있으니 빨리 지워달라고 문제 제기를 할 만큼 노수 집안의 ‘서’자 제거는 기정사실화 돼 있었다.⁴⁾

3. 서얼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1) 집사 역할

노수의 부자 되기 스토리는 조선 후기 서얼들이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갔는지를 잘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노수 사례를 분석해 보면, 대표적인 역할은 집안 관리이다. 작계는 자신이 바로 속한 집안, 그리고 크게는 종중의 각종 관리 업무를 맡는 것이다.

조선 후기 가문은 하나의 기업과도 같았다. 가문 혹은 집안을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조선이 망할 때쯤에는 국가가 없고 가문만 있을 정도였다. 이른바 세도정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물론 조선이 초기에 사회

3) 『노상추일기』 1764년 9월 22일

4) 『노상추일기』 1774년 6월 3일

운영의 책임을 일정 부분 가족에게 맡긴 것이 지나치게 커져버린 결과였다.

조선의 가문은 오늘날의 기업과도 같아서 종손이라는 CEO 외에 실무진이 필요했다. 그 역할을 서얼들이 했다. 노상추 집안에서 할아버지 죽일공은 CEO에 해당할 것이고 노수는 그 실무진 집사의 위치였다. 적자인 노상추 아버지에게는 관직을 기대했으니 집사 역할을 하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모르는 남에게 종종 재산 관리 같은 중요한 일을 맡길 수는 없다. 물론 노수는 집안 재산을 빼돌려 스스로 거부가 됐다는 비난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것은 집안 내의 문제였고, 집안을 뛰어넘는 배신은 아니었다. 노씨 집안의 세 불리기에 그렇게 불리한 일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조선후기 각 집안이나 종중은 관리자를 원했고, 일이 필요했던 서얼들은 그 역할을 맡았다.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물론 서얼들도 관직 욕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 시스템의 강고함으로 볼 때 과거 실현은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았다. 사세를 파악한 대다수 서얼들은 현실을 살아내는데 더 적절한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은 실무 역할로 나타났다. 적어도 집안 관리책임을 맡으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수 있고, 경제력을 획득하면 그로 인해 많은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 서얼들이 모두 이러한 인식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현실에서 실무 역할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주었고 그들 생활의 토대가 되었다.

“승엽이 종 2명을 데리고 왔는데 보리 타작을 위한 것이다.”

“서자 승엽이 제물을 가지고 밤늦게 도착했다.”

“승엽을 상주진영에 보냈다. 저녁에 승엽이 돌아와 말하기를 진장이 진주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김천에서 다리를 다쳐 행보할 수 없다고 한다.”

“승엽을 데리고 법화동에 가서 기와 공사를 살펴보았는데, 일이 전혀 될 듯하지 않으니 공사(公私)가 모두 낭패이다.”

“승엽을 눈에 보내서 벼가 익었는지 살펴보게 하였다.”⁵⁾

노상추의 서자 승엽이 집안에서 하는 일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보리타작, 벼농사 관리 등 농사일, 그리고 제물 관리도 하고 있다. 승엽은 노상추의 동생 즉 숙부 제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마련하고 있다. 또 주변의 관직자와 아버지의 교류에 중요한 전달자 역할을 한다. 1822년 3, 4월 할아버지 죽일공을 위한 죽일헌 건립 공사 때는 아버지를 수행하거나 혹은 틈틈이 아버지 대신 감독을 하기도 한다. 이 기록들로 볼 때 승엽은 집안의 대소사에 관여하지 않는 데가 없으며 실질적인 대표 집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상추의 아들뿐만이 아니다. 병자일기에 나오는 친남이 즉 남이옹과 조씨부인의 서자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친남이가 회덕에 갔다.”, “친남이가 흥판사를 만나보러 갔다.”, “애남이가 서울 두림(친남의 족보상 이름)에게 갔다. 신주독(神主櫃) 값을 칠값까지 합하여 열한 필 가지고 갔다.”⁶⁾ 남이옹이 소현세자와 함께 심양에 억류돼 있는 상황에서 친남이는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고 있다. 흥판사를 만나는 것은 심양에 억류돼 있는 아버지 남이옹과 관련된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으로 보이며, 집안의 신주만드는 일 때문에 서울에 머물기도 했다.

18세기 영남의 대표 관인 권상일의 서자 경우도 그 역할은 유사하다. 권상일은 아들에 대해 자주 기록했다. 아들이 항상 옆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집안일을 처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권상일이 울산 부사로 있을 때 그 아들은 집과 울산을 오가면서 권상일 곁을 지켰다. 벌목 일로 노비를 데리고 주변 지역에 가기도 하고, 권상일이

5) 『노상추일기』 1816년 윤 6월 17일; 『노상추일기』 1822년 3월 21일; 『노상추일기』 1822년 4월 15일, 16일; 『노상추일기』 1822년 8월 17일.

6) 『병자일기』 1637년 6월 30일; 1638년 2월 4일; 1638년 3월 13일.

아플 때는 대신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병문안도 대신 다녔다.

조선후기 서얼들은 집안을 위해 집사 역할을 하는 것에서 경제력도 확보하고 또 의미도 찾았을 것이다. 과거 시험이나 허통 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지만, 선택을 한 후에는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의미 부여를 하며 혜택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수가 종종 재산관리를 하고 그것으로 거부가 되었으며 결국 족보에서 ‘서’자를 뺀 과정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부모 봉양

집사역할 못지않게 서얼들이 집안에서 중요하게 해야 했던 일은 부모 봉양이었다. 적자들에게도 봉양의 의무가 중요하지만, 과거공부 또는 관직생활 등으로 집을 떠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에 비해 서얼들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으므로 집사 역할과 함께 부모, 특히 아버지를 돌보거나 보좌하는 일을 했다.

“영감을 집에 모시고 있을 적에는 슬픈 사색(辭色)도 지니지 않고 지냈는데 만리이역에 이런 시절을 만나 들여보내고 이 늙고 병든 몸이 외로이 있어 주야에 간담을 태우며 실낱같은 인생이 견디며 지내나 천남이를 심양에 보내고 나면 그 후에는 더욱이 어찌 견딜까? 제 아내를 매일 밤이 깊도록 데리고 지내니 이 사람들 아니면 어찌 할까?”

“천남이가 심양에 가려고 서울로 올라가니 더욱 섭섭하다. 이 정사(情私)가 어떠한가? 아들자식이 귀함을 이때에 더욱 알겠다.”⁷⁾

『병자일기』의 저자 남평 조씨가 첩의 아들 천남이가 남편 남이옹을 보러 심양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난 후 심난해하는 장면들이다. 아들을 여러 명 낳았으나 모두 죽고 없는 상황이어서 천남의 존재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적모인 조씨는 ‘아들자식이 귀함을 알겠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매우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노상추에게 있어서 승엽도 같은 존재였다. “서자 영엽(승엽의 개명 전 이름)을 데리고 딸네 집에 갔다”, “영엽이 겨우 열여섯 살인데 간병하느라고 주야로 곁에서 지키며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으니 부자간의 은혜를 볼 수 있다”⁸⁾는 일기 내용은 노상추가 어딜 가든 영엽을 대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병이 났을 때 늘 간병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때 노상추의 적자 익엽은 무과에 통과해 관직 진출을 기다리며 주로 서울에 있었다. 그리고 이후 수문장, 흥덕수령 등을 하면서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었다. 전형적으로 적자는 관직생활, 서자는 집에 남아서 부모 봉양하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권상일 집의 서자가 울산부사 시절 권상일을 보필한 것, 권상일이 아플 때 제사를 대신한 것 등도 모두 봉양에 속하는 일들이다.

집사 역할과 마찬가지로 부모 봉양도 서얼들에게 일정부분 힘을 실어주는 일이었다. 노상추나 권상일, 조씨부인의 경우 모두 이들 서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부모의 의존도가 높을 때 그 자식에게 힘이 실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재산을 과외로 더 받을 수도 있고, 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변에 좀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서얼들의 실생활에 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했다.

4. 서얼의 학습내용

7) 『병자일기』 1637년 7월 29일; 1637년 9월 10일

8) 『노상추일기』 1811년 8월 11일

1) 실무학습

집사 역할을 잘 하기 위해 서얼들은 실질적인 공부를 했을 것이다. 노수의 경우 무엇을 배우고자 했을까? 일차적으로 치부하는 방법을 배웠을 것이다. 죽월공은 270량을 계의 기금으로 내놓으면서 ‘이 계가 잘되고 못되고는 모두 너에게 달렸다.’라고 했는데, 이는 기금을 잘 늘리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노수로서는 이자놀이와 그래서 늘어난 돈으로 토지를 사고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을 다시 기금에 더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노수 집안 도난사건으로 죽월공이 1000냥을 탕감해줬고, 최종적으로 400냥을 내줬다는 것으로 보면, 노수가 전체 늘린 돈의 양은 초기 기금의 5배 이상이 된다. 십 여 년이 지난 후이기는 하지만, 5배 이상의 축적은 대단한 성과이다.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수는 치밀하게 치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배워 나갔을 것이다. 수요, 공급의 법칙도 암암리에 습득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장부 정리법, 계산하는 법 내지는 수학이 필요했을 것이다. 얼마를 빌려주고 이자를 얼마를 받았다는 기록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며, 적절한 이자율을 정해 두고 있었을 것이다. 이른바 회계관리 혹은 경영학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학은 돈 관리에만 그치지 않는다. 일의 관리감독, 인사관리도 경영의 중요한 파트이다. 노비들을 데리고 농사 일을 살피고 또 집안의 온갖 제사들을 준비하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사람 관리는 필수이다.

“죽월공 기일이어서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니 …승엽과 두엽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산에 올라가서 파종 상황을 보니 문옥과 승엽이 모두 파종을 했다.”

“승엽이 奴 세월을 데리고 主山과 局樹, 洞口 등 3곳에 제사를 지냈다.”

“승엽이 工役을 보러 갔다.”

“수월에 가서 묘사를 지내는데, 기엽과 승엽이 함께 가고 옥양동 묘사까지 지냈다.”

“승엽이 집에 머물면서 토목공들을 대적했다.”⁹⁾

이렇게 다양한 일을 처리하면서 승엽은 업무 효율성, 인사관리를 신경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분야에 경험 있는 전임자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방법을 전수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농사법도 알아야 했다. 파종이나 보리타작을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소출을 많게 하고 또 효과적으로 작업을 끝낼 수 있는지 관심 갖지 않을 수 없다. 조선 말기 심원권이 들판에 서면 ‘오늘 乙風이 분다.’¹⁰⁾라며 단숨에 바람 방향과 종류를 아는데, 이는 농사일 때문이었다. 승엽의 경우도 심원권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바람에 대해 알 만큼 농사일에 전문성을 가졌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물론 경험자로부터의 학습이 필요했다.

2) 과거 공부

서얼들도 과거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무과는 좁게라도 서얼들에게 열려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적자들만큼 과거 급제를 위한 서포트와 기대를 받았을지는 의문이다. 노상추 집안의 경우를 보면, 노상추 자신이 무과급제자이며 또 그 아들도 무과를 통과했다. 즉 조선후기 양반 집안의 적자들이 무과에 적극성을 보이게 되면서, 양반가의 서얼들이 무과에 통과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갔다.

“두림이 저는 과거보고 바로 심양으로 들어가려고 일봉이와 함께 오지 않았으니 섭섭함이 많다.”¹¹⁾

조씨부인의 서자 두림(천남이의 족보상 이름)이가 서울에서 과거 공부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조씨부인은 바로 심양으로 가려고 했다는 사실을 두고 섭섭해하고 있다. 물론 단순히 보지 못하는 것을 섭섭해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행간에서 두림의 과거에 조씨부인이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있

9) 『노상추일기』 1814년 윤2월 1일; 윤2월 2일; 3월 10일; 1815년 10월 15일; 1822년 윤3월 26일

10) 『심원권일기』 1880년 5월 12일

11) 『병자일기』 1638년 3월 10일

다는 사실이 읽힌다.

두림이는 집사 역할을 하면서 아울러 과거 공부도 병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비율이 어느정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데 두림이가 과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집안일을 하면서 과거공부를 한다는 게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되 실제로는 거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적자들이 과거에 올인하는 것과 비교 된다.

승업도 과거에 관심이 없지 않았다. 1823년 3월 28일 승업이 서울에 가고자 했는데, 과거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승업은 20일 만에 돌아오는데, 庭試에서 문과 10명, 무과 19명이 합격한 사실을 상세히 보고 한다. 그러나 역시 승업이 평소에 과거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두림과 마찬가지로 생각이 없지는 않지만, 생각뿐이고 몸은 집안관리에 있다.

“서손 두석이가 올해 9살이다. 처음으로 통감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뜻을 능히 잘 안다.”¹²⁾

노상추가 승업의 아들 두석이가 통감을 읽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장면이다. 어렸을 때는 서자들도 경전을 읽었다. 과거 공부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직은 체감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승업도 어린 시절 친척과 함께 시전을 읽은 적이 있다. 즉 서얼들은 어렸을 때는 유교경전을 읽으면서 과거에 뜻을 두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능성이 희박함을 인식하고 집안관리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5. 맺음말

조선시대 서얼들 하면 ‘불우한 인사’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과거도 못 보는 불완전한 양반이라는 관념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조선사회에서 그렇게 많았던 서얼들이 불우한 처지를 한탄하면서도 지냈을까? 그러기에는 조선의 서얼차대는 길고 강고했다. 서얼들은 시스템 전환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에는 점차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조선후기 서얼들은 집안 내에서 집사 일과 부모 봉양 등의 실질적인 일을 하면서 현실을 살아내고 그것을 통해 힘을 축적해 나갔다. 적자들이 유교를 통해 문중의 의식세계를 지탱했다면 서자들은 실무를 통해 문중의 경제를 책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경제력을 확보한 서얼들은 점차 자신의 지위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다. 서자 노수의 사례를 보면, 집사 역할로 거부가 됐고 결국 그 경제력으로 족보에서 ‘서’자를 제거하면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다. 이 신분 상승 과정은 경제력의 확보와 스스로의 의식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노수가 평균분급을 한 것은 의식변화의 한 사례로 보인다. 이 시기 조선은 이미 대개 장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주고 있었다. 그런데 노수는 자신의 방식대로 장자에게 제사 몫으로 1/5을 더 준 거 외에는 평균분급을 했다. 적서의 구분을 없애는 그의 노력은 여타의 생활에서도 구분을 없애는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노수는 여러 면에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렇게 조선에서 의식 또는 지위 변화를 경험한 서얼들은 유교적 틀 안에서 그러한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적자들에 비해, 근대 이후의 삶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혹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 개화 또는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중에 서얼이 많다는 것은 꽤 알려진 사실이다. 이 부분은 조선후기와 근대를 연결하면서 좀 더 연구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12) 『노상추일기』 1823년 6월 20일